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 2월 10일 브루클라인 비컨 스트리트에 위치한 늘푸른교회에서 만난 이진택 목사가 '슬기로운 미국생활'을 공개했다. 그는 49세에 소령에 진급했으며 교회 목회는 물론 미 육군 예비역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학연수생서 49세 소령 진급한 목사의 "슬기로운 미국생활"

미군생활, 뺏속까지 한국인이 미국 사회 이해하는 통로
미국사회, 실력 없어도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통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 육군 예비역(Army Reserve) 군목으로 복무 중인 이진택 목사(49)가 1월 27일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 목사는 “아미 리저브 7년차로, 처음에는 대위로 임명받아 입대했는데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했다” 고 말했다. 지난 7년 동안 4개 예비역 부대를 돌며 종교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왔다.

이 목사는 최근 1년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CPE 레지던시 프로그램(Clinical Pas-

〈전체 기사 읽기〉

toral Education Residency Program)’ 을 수료했다. 병원 환경에서 원목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는 “액티브 스테이 터스(현역 복무)로 1년간 교육을 받았고, 보드 서티파이드 채플린(Board Certified Chaplain) 자격 과정도 진행 중” 이라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에 자연스럽게 진급도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13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속도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도입 추진

힐리주지사 · 의회,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법안 상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과속 및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의회는 각기 다른 형태의 법을 제안했지만 공통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교통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안은 과거 매사추세츠 의회에 거부된 바 있으나 점차 카메라 기반 교통 단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 단속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교통 위반자를 경찰이 추격하도록 허용하면서 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26개주는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을 허용하고 있다. 보스턴시와 케임브리지 시 등은 교통 단속 카메라가 사 ▶▶14면으로 계속

THE PRO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디지털 신문의 기사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과 지면보기에서 이제는 기사 읽기가 더욱 편해집니다 .

PDF면에서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들은 해당 기사의 오른쪽 칼럼 위에 **전체기사 읽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바로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의 기사로 연결되어 웹사이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 코리아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청소년 및 신진작가 성장과정 조명하는 코큐브 프로젝트의 첫 전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청소년 작가 26명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코큐브 유스 아트 쇼케이스를 통해 일반 관중들이 예술작품을 매개 청소년들의 작품을 만나고 그들의 세계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일까지 보스톤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전시에는 메인 작가로 선정된 청소년 김강희(Lucy Kanghui Kim), 성예진(Yejin Seong)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한국 전통 수묵화 기법의 공동 프로젝트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24명의 학생은 강병우, 김종현, 김주연, 김하연, 나연재, 남윤우, 노윤, 신재환, 안유찬, 안현기, 오유진, 오유택, 오재인, 우예은, 윤도현, 이다영, 장건, 조민수, 조윤하, 최정민, 최정인, 황수련, 황정민, 그리고 Benjamin 민준 장이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미술위원회가 기획한 코큐브(KOCUBE)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신진 작가들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는 지속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작품의 결과보다 그 과정과 시간, 그리고 사고의 확장을 전

시로 담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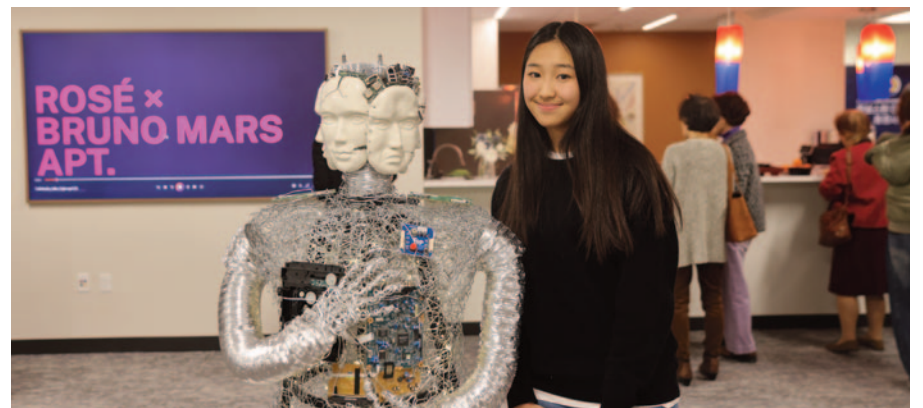
전시 총괄 및 큐레이션을 맡은 김민희 디렉터는 “학생들의 전시를 통해 자신에게 지나가는 시기를 마주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창작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전시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13일 열린 리셉션에는 김강희, 성예진 메인작가를 비롯해 Benjamin 민준 장, 장건, 강병우 학생이 참가했다. 김재휘 총영사 및 총영사관 관계자들, 김병국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장, 예술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가했다.

김강휘 작가는 발표를 통해 “제 작업들은 지난 몇 년동안 경험해온 성장, 자아, 내면 그리고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며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나만 겪는 과정이 아니구나’라는 공감으로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도자기 작업을 하면서 “그림처럼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다가, 무너지고



13일 보스톤총영사관 리셉션에서 전시 학생작가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병국 예술협회장, 김민희 디렉터, 김강희, 강병우, 장건, 장민수, 성예진, kwakjeongrye 부총영사



김강희 학생 작가가 자신이 제작한 작품과 함께 했다

다시 제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춘기의 제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성예진 작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 나무의 그림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자연에 대한 태

도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나무가 되어서 자연의 감각을 체험하도록 유도해 자연 파괴의 결과를 성찰하게 한다는 의도로 제작했다”며 “다 ▶▶4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세계 No.1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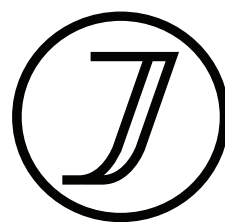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전화주문 서비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 2면에 이어서

시 자연이 관촬아지는 그런 세상을 그렸다” 고 설명했다.

4점의 수묵화를 전시한 Benjamin 민준 장 학생 작가는 “자신이 11살 때 그린 수묵화가 가장 애착이 간다” 고 말하고 “그릴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전시장에 걸린 자신의 작품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김민희 디렉터의 수묵화 지도를 받아 공동 프로젝트의 한 작품으로 선정, 전시된 장건 학생 작가는 “수업을 몇 번 못했는데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행복했고, 정말 자랑스러웠다” 고 전시 경험에 대해 소감을 전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리셉션에서 학생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총영사관 “전시공간의 이름을 새로 지어야 할 것 같다” 면서 예술협회, 전시한 작가 등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영사는 이 공간을 더 활용해 연주회도 해보고 한인동포들의 의미 있는 행사 등 보스턴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혔다.

김 총영사는 또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우리 작품을 만든 학생이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궁금한 작품들도 많고...이런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

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아주 젊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예술협회 코큐브는 앞으로 봄·가을 정기 전시를 통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신진 작가를 아우르는 전시를 이어가며, 예술가의 성장 과정 자체를 기록하는 전시 플랫폼의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은 “봄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하고, 가을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출신의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다시 여기서 전시를 할 계획이니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대표해 참가한 박현아 교무는 “김민희 미술 선생님과 학생들이 긴 시간동안 정성껏 준비한 작품들을 이 전시공간에서 한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동이다” 라며 “오랜만에 마음이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김민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해에 확장 이전한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진행됐다.

editor@bostonkorea.com



성예진 학생 작가가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리셉션에 참가한 예술협회 관계자 및 학부모



자신의 작품앞에 선 장민준 학생 작가

3.1 절 기념식 3월 28일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

부 = 뉴잉글랜드 한인회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3.1절 기념식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뉴턴 소재 주보스턴 총영사관에서 개최된다.

제 107주년 3.1절 기념식은 보스턴 총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며 매사추세츠 한인회가 주관, 보스턴코리아가 협찬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기념식 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식과 총회는 장영수 한인회장이 다시 임기 재개를 선언한 후 첫번째 행사이다. 이번 총회에서 장 회장의 향후 계획 차기 회장에 대한 의견 등이 자세히 제시될 지 주목된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해 게이 트웨이 센터 빌딩 2층에서 8층으로 이전한 보스턴 총영사관 ‘열린 공간’에서 열린다. 3.1절 기념식 및 매사추세츠 한인회 총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영수 한인회장(978-994-0306)으로 할 수 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20th - FEB. 26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EASY SUKIYAKI

Comfort in a pot, made for slow evenings and satisfying bites. With ingredients from H Mart, enjoy every warm and flavorful moment. 온 가족 식탁을 채우는 따뜻한 스키야키, H Mart와 함께 준비해보세요.



Shanghai Tip 청경채 팁 LB \$1.99	Stem Tomato 줄기 토마토 4 LB/BOX \$7.99	Yellow Dragon Fruit 노란 용과 LB \$2.49	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2\$4.99 FOR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49	Lotus Root 연근 LB \$1.79	Frozen Durian Pulp 냉동 두리안 14.11 OZ/PKG MUSANG KING \$24.99 BLACK THRON \$29.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1.99	Cherry 체리 1 LB/PKG \$5.9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3 CNT/BOX \$9.99	Hass Avocado 해스 아보카도 EA \$0.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EA \$0.99

신 선 한 정 육 M E A 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Beef Eye Round 생 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싱 싱 한 수 산 물 S E A F O O 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6.99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14.99
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손질된 자반 참조기 300-400'S/LB \$7.99	Frozen Small Octopus 주꾸미 5-15'S/LB \$5.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TAEKYUNG Japchae Korean Sweet Soy & BBQ Flavor Cup Glass Golden Noodles 농심 태경 컵잡채 \$14.99 3.63 OZ X 6 EA/BOX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 3 LB \$12.99
H MART SMART CARD ONLY PULMUONE Thin Wrap Kimchi Dumplings 풀무원 얇은피 짬뽕속 김치만두 \$7.99 21.2 OZ	H MART SMART CARD ONLY PULMUONE Thin Wrap Pork & Vegetable Dumplings 풀무원 얇은피 짬뽕속 고기야채만두 \$7.99 19.8 OZ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2.99	RAW NATURE Cooked White/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10.99	SAMYANG Buldak Spicy Chicken Stir-Fried Ramen Noodles 삼양 핵불닭볶음면 2X SPICY 4.94 OZ X 5 EA/PKG \$6.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S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4.99	ALLGOT BABA Tuna-mayo Kimbab 올곧 바바 참치마요 김밥 2\$6 FOR 8.46 OZ
K TOWN Dukboki Traditional Family Recipe 케이타운 그대 그맛 국물 떡볶이 ORIGINAL 1.32 LB \$4.99	DAEDOO FOODS Premium Corn Bread 대두식품 진짜 옥수수빵 14.8 OZ \$7.99	PULMUONE Custard Style Hodugwaja Walnut-shaped Mini Cakes 풀무원 슈크림 호두과자 12.7 OZ \$6.99	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0.58 OZ 2\$7 FOR	K TOWN Cacao Pie 케이타운 카카오파이 10.58 OZ 2\$7 FOR
ORION Shark Gift Box 오리온 상어 선물세트 23.32 OZ \$9.99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8.04 FL OZ X 12 CANS/BOX \$11.99	GLASSLOCK Food Container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 핸드형 2000 mL/2500 mL/3700 mL \$16.99-25.99 \$11.99-18.39 EA	KOCOSTAR Rose Lip Mask 코코스타 로즈 립 마스크 20 SHEETS \$19.99 \$12.99 1.76 OZ PKG	AT'G9 Color Catcher Washing Sheet 엣지나인 시트형 이염방지 세탁세제 30 SHEETS \$9.99 \$6.79 PKG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보스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 두 차례 더...이후 한파

금요일 적설량 가장 클 듯, 일요일 노이스터는 빗나갈 수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지역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두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또 제설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중 금요일 눈이 가장 많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해안 폭풍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첫 번째 눈은 금요일 시작되며 이번 주말의 핵심 변수다. 현재 예보로는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대부분 지역에 2~4인치 눈이 예상된다. 북부 뉴잉글랜드는 이보다 더 많은 적설이 가능하다. 매스파이크(Mass Pike) 북쪽, 특히 루트2 인근은 2~5인치까지 쌓일 가능성이 있다. 남쪽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아 1~2인치 또는 그 이하에 그칠 수 있다.

이번 눈의 양은 기온과 비·눈 경계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금요일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경우 비가 섞이면서 적설량이 줄 수 있다. 반대로 메인만(Gulf of Maine) 쪽에 2차

<전체 기사 읽기>

저기압이 형성되면 눈으로 빠르게 바뀌어 적설이 늘 가능성도 있다. 보다 정확한 윤곽은 목요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두 번째 변수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해안 폭풍 가능성이다. 일부 경우 노이스터(nor'easter)로 발달할 여지도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보 모델은 이 폭풍이 뉴잉글랜드를 비껴 나갈 것으로 본다. 실제 영향이 있다면 매사추세츠 일대에 2~4인치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유럽 모델은 보스턴에 수 인치, 케이프 지역에 3~6인치를 제시하지만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주말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천문조(astronomically high tides)' 시기와 겹쳐, 폭풍 경로에 따라 해안 침수나 해변 침식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월요일 폭풍이 빗나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화요일부터는 맑지만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돌아올 전망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주립 캠핑장 예약 18일 오픈...인기 해변부터 숨은 명소까지

25개 주립 캠핑장 4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해안 캠핑장 가장 인기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아직 눈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사추세츠의 봄·여름 캠핑 시즌 예약이 시작됐다.

매사추세츠주는 25개 주립 캠핑장 예약(<https://massdrcamping.reserveamerica.com/>)을 18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받기 시작한다.

매사추세츠주 환경보전 및 공원 관리부(DCR) 캠핑 서비스 책임자 팻 리는 "각 캠핑장은 모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며 초보자부터 숙련 캠퍼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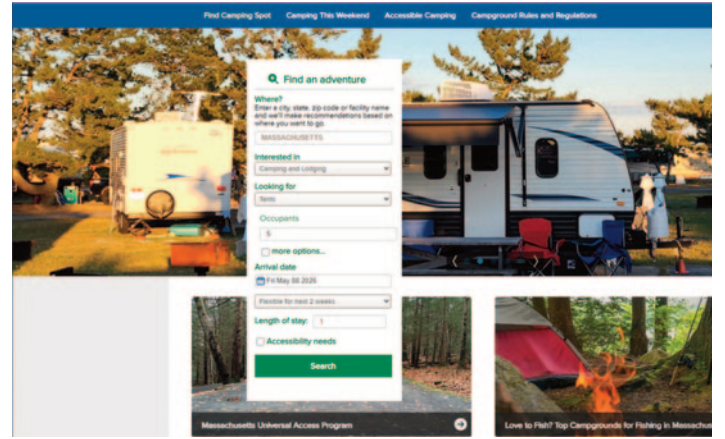
초보자에게 적합한 곳

장비가 많지 않은 캠퍼라면 원형 캐빈인 유르트(yurt)나 캐빈이 마련된 '구조화된' 캠핑장이 적합하다. 침낭과 베개 등 기본 용품만 준비하면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캠핑장

DCR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해변과 바로 연결되는 캠핑장이다.

■Salisbury Beach State Reser-



vation, ■Scusset Beach State Reservation, ■Horseneck Beach State Reservation

이들 캠핑장은 대서양과 인접해 있어 캠핑장 내부에서 곧바로 해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여름철 예약 경쟁도 가장 치열하다.

'숨은 명소'는 최근 재개장한 팔머스의 워시번 아일랜드(Washburn Island)도 주목받는다. 와와이트 베이 보호구역에 위치한 섬 캠핑장은 단 10개 사이트만 운영된다. 한적한 분위기가 장점이지만, 배를 이용해야 접근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가는' 장소다.

이용 전 알아둘 점

2026년 캠핑 시즌은 장소에 따라 4~5월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진다. 예약은 4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며, 이날 기준 6월 18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요금은 내륙 캠핑장의 경우 매사추세츠 주민은 1박 17달러부터, 타주 방문객은 54달러부터 시작한다. 해안 캠핑장은 주민 22달러, 타주 방문객 70달러부터다.

인기 캠핑장은 금세 마감된다. 봄 햇살 아래 모닥불을 꿈꾼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

bostonkorean@hotmail.com

우스터 한인 연합 감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새 예배당 주소 :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2:30
친교 시간 : 주일 오후 3:30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Tel: 508.799.4488 Email: 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t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	---	--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1111@hotmail.com	

소형 태양광 패널, 이제 뉴잉글랜드서도 사용 길 열리나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소형 태양광 패널을 허용하는 입법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곧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패널을 일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이른바 ‘플러그인(plug-in) 태양광’ 패널은 보통 200~1,200와트 규모로, 생산된 전기를 소형 인버터를 통해 가정용 전력 형태로 변환한 뒤 콘센트에 연결해 가정 내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기 규정은 전력망(grid)에서 가정용 차단기 패널(Breaker Panel)을 통해 들어가는 일방향 전류 구조로, 역방향 플러그인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틸리티 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 허용되지만, 추가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도 제품 판매에 소극적이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은 이러한 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현재 메인,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뉴잉글랜드 여러 주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주에서 플러그인 태양광을 허용하거나 규

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보급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보스턴글로브는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25개국에서 플러그인 태양광이 허용되며, 독일에서는 2024년 말 승인 이후 100만 대 이상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독일 연구에 따르면 사용 패턴과 전기요금 수준에 따라 2년 반 만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례도 있다.

가격은 400와트 단일 패널이 수백 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1,200와트 다중 패널 시스템은 2,000달러를 넘기도 한다. 초기 비용 회수 이후에는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인주의 한 환경단체는 1,200와트 플러그인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평균 가구 전기요금을 약 21%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뉴잉글랜드 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평균 600킬로와트 사용,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30센트)으로 볼 때, 1.2kW급 콘센트형 태양광은 가구 전기요금을 약 20~25% 줄이고, 3~4년 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는 특히 지붕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임차인이나 저소득 가구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가 이동 가능해 이사 시에도 가져갈 수 있는 점도 장점



으로 꼽힌다.

반면 한계도 분명하다. 발전량이 가정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수천 달러에 이르는 초기 비용이 여전히 부담이다. 버몬트주 공공서비스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해법으로 보기에는 아직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이미 사용 중인 회로에 추가 전력이 유입될 경우 차단기(breaker)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부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명확한 기술 기준과 제도 정

비가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보스턴글로브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플러그인 태양광이 더 광범위하고 논쟁적인 기후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버몬트의 경우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가 소매점에서 널리 판매되기까지는 국가 차원의 전기 안전 인증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며, 지지자들은 향후 1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문제성 도박 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FEB. 19TH - FEB. 26TH, 2026



wangta 왕타 칫솔세트

WANGTA TOOTHBRUSH



COMPACT HEAD TOOTHBRUSH

\$3.69

← REG. \$7.99

7 PCS/SET

LIMIT 3



WIDE HEAD TOOTHBRUSH

\$3.99

← REG. \$8.99

6 PCS/SET

LIMIT 3



Pulmuone 풀무원

직화짜장면+직화짬뽕

**KOREAN STYLE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 SPICY
SEAFOOD NOODLE SOUP KIT**

\$7.99

← REG. \$13.99

2.1 LB

LIMIT 2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Quincy
Somervill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Brooklin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연준 은행 모기지 대출 규제 완화 모색, 모기지 시장 흔들릴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은행의 모기지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미국 주택시장의 모기지 대출 판도가 흔들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연방정부가 은행의 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시장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모기지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나 웰스파고(Wells Fargo) 같은 대형 은행 대신 로켓 모기지(Rocket Mortgage)나 페니맥(Pennymac) 등 비은행 모기지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은 모기지 관련 잠재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했다. 그 결과 대형 은행들은 모기지 사업 비중을 줄여왔으며, 현재 미국 내 주택대출의 상당 부분은 이들 비은행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

serve)의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7일 연설에서 은행들이 모기지를 취급하고 보유할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준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은행들은 전체 모기지의 약 60%를 신규 취급했고, 모기지 잔액의 약 95%를 관리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신규 취급 비중이 35%, 서비스 비중은 45%로 낮아졌다. 그사이 비은행 모기지 업체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보우먼 부의장이 제안한 방안은 차입자가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낼 경우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본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기지 서비스 권리를 은행 위험자산으로 반영해 온 회계 기준을 완화해 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 부담을 덜어주어 여유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준은 은행이 비은행 업체와 달리 위기 시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다각화되어 충격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팬데

〈전체 기사 읽기〉

믹 당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이 비은행 업체 고객보다 상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페니맥의 공공정책 책임자 아이작 볼탄스키(Isaac Boltansky)는 비은행 업체들도 금리 변동성이 큰 환경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비은행 업체들은 주 정부 중심의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약 6.1% 수준으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은행과 모기지 업체의 금리는 최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각종 수수료와 포인트 구조에 따라 실제 총대출비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금리보다 연간 실질금리(APR)와 클로징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웰스파고, 씨티그룹(Citigroup) 등 대형 은행들은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모기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TD 코웬(TD Cowen)의 애널리스트 재럿 세이버그는 이번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비은행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일부를 은행에 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우먼 부의장은 은행들이 시장에서 물러나면서 경쟁이 줄었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월슬리 주차장 주택 개발 추진에 주민 반발... 주택난 해소정책의 시험대

지역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 주택난 해소 위한 주택 공급 차질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택부족을 해소코자 추진한 아파트 주택 개발 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며 주택난 해결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주 정부와 매스베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월슬리 캠퍼스 맞은편 오클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5에이커 규모의 주소유 주차장 부지를 '잉여(surplus) 토지'로 지정하고, 최대 18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 유발 문제와 인접한 숲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계획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지인 만큼 개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매각 수익은 캠퍼스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최근 사이버보안과 보건과학 프로그램 인기가 크게 늘었지만 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건물 건설에 약 7천5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40에이커 규모의 숲이다. 이 숲은 인근 보호구역과 산책로로 연결돼 있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녹지 공간이다. 주 정부가 행정적 이유로 주차장과 숲을 포함한 전체 45에이커를 한 필지로 묶어 잉여 토지로 지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숲도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역 보전 단체들은 이 부지가 사실상 공공 오픈 스페이스처럼 관리돼 왔으며 개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 정부는 숲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장기 보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 숲 보전, 학교 재정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슬리 타운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셀렉트보드는 로펌을 선임해 주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잠재적 소송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청원서 제출, 전용 웹사이트 개설, 표지판 배포 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단독주택 위주의 타운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 공급 확대를 지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들은 숲이 아닌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에 주택을 짓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며, 심각한 주거난 속에서 지역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월슬리는 다세대 주택 건설이 매우 적었던 지역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한 물량도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220만 달러에 달해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갈등은 매사추세츠 전역의 주거난을 배경으로 한다. 주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잉여 공공부지에 다세대 주택 개발을 허용했고, 여러 부지에서 수천 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월슬리 부지도 그 연장선에 있다.

주 정부는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규모 축소에는 선을 긋고 있다. 관계자는 이 과정이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다며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월슬리 주차장 개발이 주거난 해소의 모범 사례가 될지, 지역 반발에 막힌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데이 무료체험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세요!



기미 / 잡티 / 리프팅 / 탄력 / 미백 / 여드름 / 아토피

Esther TL SGM ICD **781.454.1357**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매사추세츠, ICE 활동 제동, 현장 경찰은 "법 집행 충돌 우려"

“지역 정부와 경찰 수장들이 정확한 대응 지침 제공해야”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요 시와 타운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시 소유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이민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경찰로 번지고 있다. 현장 일부 경찰 지휘부에서는 “지역 경찰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치에 세우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스턴을 비롯해 케임브리지, 서머빌, 린, 뉴턴, 첼시 등 6개 시와 타운은 이달 초 행정명령을 통해 ICE 요원들이 시 소유 부지를 단속 집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연방 요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기록·문서화하고 필요시 수사하도록 지역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 수장들은 이러한 지침이 현장 경찰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한다. 매사추세츠 주요 도시 경찰서장 협회 회장인 잭 버클리 메드퍼드 경찰서장은 서한을 통해 “고도로 긴박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경찰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는 실시간 법률 판단을 강요하는 구조가 “시민과 연방 요원, 그리고 경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도 ICE 요원들의 과잉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간 충돌이 격화되며 민간인 2명을 사살하는 사건으로 번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차량 창문을 부수거나 주택에 진입하는 행위, 평화적인 시위대에 페퍼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 등에 비판이 제기됐다. 메인주 단속 과정에서 컴벌랜드 카운티 세리프인 케빈 조이스가 합법적 취업 허가를 지닌 교정 공무원이 체포된 사건을 두고 “아마추어식 치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했다.

반면 매사추세츠 리아 폴리 연방 지검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연방 요원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을 따른다며, 주법은 연방 요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체 기사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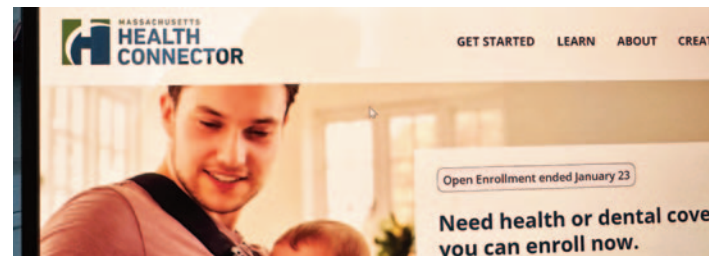
이번 조치를 주도한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로 다른 정부 소속 무장 요원 간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스턴 경찰이 ICE 요원을 체포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며, 대신 바디캠 촬영과 공식 보고서를 통해 위법 행위를 기록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장 없는 주택·사업장 진입이 발생할 경우 911 신고를 권고했다. 또 보스턴 경찰국이 연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폭력·재산 피해·범죄의혹을 수사하고, 필요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찰행정연구포럼(PERF)의 척 웨슬러는 “역사적으로 지방 경찰이 연방 법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적은 거의 없다”며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법 집행 체제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스턴 경찰 노조 측도 향후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지휘관과 경찰관이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강경 대응은 지역 사회 보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연방 권한과 지방자치의 경계가 충돌하는 지점에 선 경찰은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보조금 종료로 매사추세츠 주민 5만여 명 보험 상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세금크레딧(Enhanced Tax Credit)이 종료되면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수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건강 보험거래소인 헬스 커넥터(Health Connector) 관계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입자가 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보조금에 의존하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크게 인상시킨 연방정책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췄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확대세금크레딧은 2025년 말로 만료됐으며, 올해 초 의회가 연장에 실패하면서 종료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두세 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만2천 명이상이 스스로 건강보험을 해지했다. 비영리라디오 WBUR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지율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더해 3만5천 명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했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헬스 커넥터의 오드리 모스가

스티어 사무국장은 이사회 회의에서 “보험을 유지하려 애쓰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결국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앞으로 몇 달간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헬스 커넥터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주 제공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민간 보험을 연결해주는 보험거래소이다. 이곳 가입자 대부분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연방 지원이 끝나자 모라 힐리 주지사는 커넥터 가입자 지원을 위해 2억5천만 달러의 주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연방 보조금 축소로 인한 공백을 모두 메우지는 못했다.

주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들은 보험을 중단한 주민 상당수가 현재 무보험 상태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헬스 커넥터 대외협력 책임자인 제이슨 레퍼츠는 “이들은 결국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헬스 커넥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매사추세츠 주민은 35만2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어학연수생서 49세 소령 진급한 목사의 "즐거운 미국생활"

▶▶12년에 이어서

진급과 함께 새로운 임무도 주어졌다. 독일에 주기적으로 파견되는 임무가 3월부터 시작된다. 진급 후 미 동부 쪽 사령부에는 소령 임무지가 없어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사단으로 배정받게 됐다. 3월부터는 세 달에 한 번씩 독일로 가서 6일동안 군목으로 근무한다. 군인들의 종교서비스와 카운슬링을 담당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 목사가 군에 지원한 것은 7년 전 42세였다. 그에 따르면 군대는 의료관, 법률관 그리고 종교관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비교적 느슨하다. 현역은 42세, 예비역은 48세까지 입대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구나 “입대 전 직업 경력도 인정해주 그는 소위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임명됐다” 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의 입대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신학교 재학당시 한국계 군 채용 담당자로부터 영주권을 받고 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지원해 8년전 입대 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들의 입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입대가 취소됐다. 그러나 1년 후 군은 다시 연락해 입대를 허용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가 군을 선택한 것은 ‘이민자로서의 현실’ 과도 맞닿아 있었다. 1999년 보스턴에 어학연수로 시작, 교회 활동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 과정으로 신학을 전공했다. 전도사로서 담임목회를 맡아 15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작은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러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는 “청소도 하고 공방 라이드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우체부도 했다” 고 털어놨다. 신분과 재정 문제는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그 어려운 시간을 주어질 때마다 ‘보스턴에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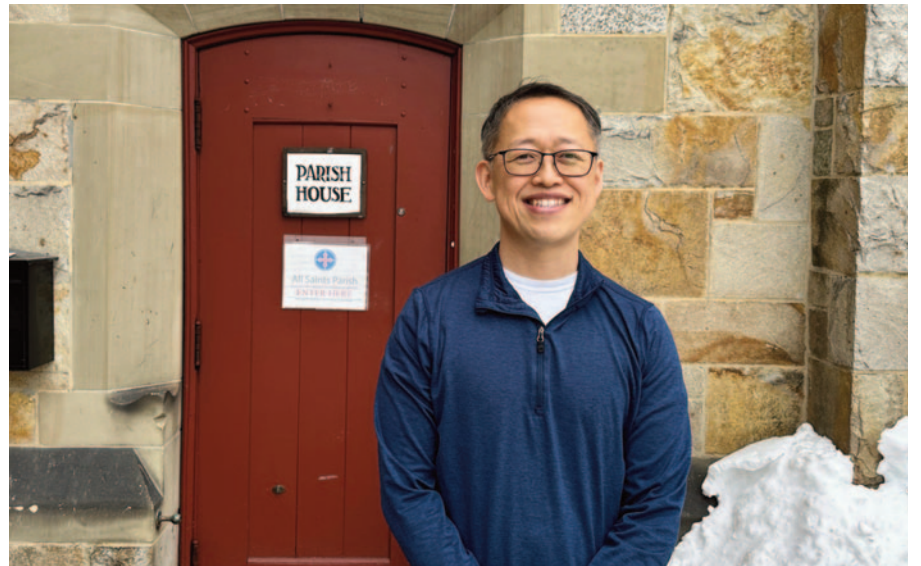
가치가 있느냐’ 를 되뇌었고 “그에 대한 답이 제게는 분명했다” 고 확고하게 말했다.

군복무는 ‘미국을 이해하는 통로’ 가 됐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생활하면 미국 사회와의 접점이 적다. 예비역 부대에서는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처음엔 군복 패치도 제대로 못달고,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 여서 스트레스가 컸다” 면서도 “군목으로서 3분 정도의 짧은 ‘Word of the day’ 라는 격려사를 하면 존중해주고 박수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했다. 한국에서는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하니까 진심이 통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고 말했다.

여건이 안되고 실력이 모자라도 열심히 하면 절반의 크레딧을 주는 나라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는 “땀속까지 한국사람이지만 미국이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많다” 고 느꼈던 부분이다. 또한 미군이 스스로 악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자각 아래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대화하고 그걸 숙고하는 게 같은 선상에서 인상깊었다.” 고 덧붙혔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큰 장점으로 ‘지휘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꼽았다. 그는 “군은 체계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돌아간다. 그런 ‘브리핑 · 커뮤니케이션 · 평가’ 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군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배웠다” 고 말했다.

차별도 겪었다. 훈련 초기에 한 동료 채플린이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동양인이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캡틴을 달고 있으니 불편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결국 그분도 태도가 달라졌고 존중해줬다”



며 “레이시즘은 어디에나 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환경에서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유연해질 여지도 있었다” 고 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보스턴 한인사회’ 로 넘어갔다. 그는 1999년 이후 보스턴의 한인사회가 “턴오버(구성원 교체)가 매우 큰 구조” 라고 진단했다. “오래 살다가도 은퇴하면 애틀랜타나 플로리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 교회나 단체도 생겼다 사라지는 일이 잦다” 는 것이다. “턴오버가 (보스턴 지역의) 숙명이어서 정말 어려움이 크다” 는 그는 그럼에도 “뿌리를 내리고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분들의 역할이 크다” 며 지역 언론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보스턴의 매력에 대해서는 ‘국제성’, ‘걷는 도시의 안전함’, 그리고 ‘시간이 쌓인 뒤 드러나는 친절’ 이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서부처럼 먼저 말을 걸어오는 친절은 없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다름을 존경하는 방식의 친절이 있다” 며 “오래 살다 보니 이웃들과 식사 초대도 오가고, 눈이 오면 안부를 주고받는다. 시간

이 걸려서 그렇지 깊게 관계가 쌓인다” 고 말했다. 또 교회가 30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건물주 교회측의 배려를 언급하며 “코로나때도 재정 상황을 물어보고 렌트도 배려해줬다. 제가 경험한 보스턴에는 은혜가 있다” 고 했다. 그의 가족 모두가 보스턴을 사랑하게 된 이유다.

이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인 1세들에게 리저브 · 내셔널가드 복무를 “현실적인 교육 · 경력의 통로” 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 혜택이 크고, MOS(군 직무)를 받으면 로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네트워크가 생긴다. 스테이트 잡 기회나 AGR(폴타임 군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며 “특히 1세들은 한인 업종에 갇히기 쉬운데, 군은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ROTC 같은 길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며 “언젠가 중령 진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족과 함께 진급 세리머니도 하고 싶다” 고 웃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과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병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환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출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길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 010-3469-4040(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임업협회

나락에서 정상으로 귀환한 앤소니김...왜 타이거우즈도 반기나

마약과 술로 지운 16년, 그리고 기적 같은 우승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2월 15일 일요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그레인저 골프 클럽에선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됐다. 40세의 앤소니 김이 18번 홀 그린에서 짧은 퍼팅을 마무리하는 순간, 갤러리 는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LIV 골프 애들레이드 최종 합계 23언더파 우승, 세계 최고의 골퍼 중 하나인 윤 람과 브라이슨 디섀보를 3타 차로 제친 값진 승리였다.

TV에서 앤소니 김이 선두그룹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아직도 프로골퍼였나’ 잠시 반문했을 정도였다. 최종 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앤소니 김의 우승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54홀 선두였던 람과 디섀보에게 무려 5타나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고, 당시 그의 우승 확률은 LIV 중계진의 분석에 따르면 겨우 0.1%였다. 하지만 그는 줄버디를 쫓아넣었다. 12번 홀부터 15번 홀까지 4연속 버디, 17번 홀에서도 15피트 퍼팅을 성공하며 보기 없는 9언더 6타를 기록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디섀보는 4보기로 무너졌고, 람 역시 따라오지 못했다.

우승 직후 앤소니 김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품에는 아내 에밀리와 네 살배기 딸 이사벨라가 뛰어들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벅하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제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골프위크에 따르면 앤소니 김은 이번 우승으로 23.1378포인트를 받아 세계 랭킹 847위에서 203위로 급등했다. LIV 골프가 올 시즌부터 공식 세계 랭킹 포인트를 적용받기 시작한 덕분이다. 상금도 400만 달러(약 57억 원)에 달했다.

골프 세계는 들썩였다. 타이거 우즈도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을 앞두고 앤소니 김의 컴백을

공개적으로 반겼다. “우리 모두 삶의 어려움을 한다. 하지만 그가 그 깊은 나락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우즈는 말했다.

화려한 등장 그리고 갑작스런 사라짐

16년 전, 앤소니 김은 골프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2006년 프로로 전향하자마자 PGA 투어의 시선을 바로 사로잡았다. 2008년, 그가 불과 23세의 나이에 와코비아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을 때, 골프계는 ‘타이거 우즈의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 해 AT&T 내셔널에서도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2008년 라이더컵 발할라에서는 당시 유럽의 에이스 세르지오 가르시아를 꺾으며 미국의 오랜 라이더컵 가문(6번의 대회 중 5번 패배)을 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9년 마스터스에서는 한 라운드 최다 버디 기록인 11개를 작성하며 오거스타 내셔널을 놀라게 했다. 세계 랭킹은 6위까지 치솟았고, 2010년 휴스턴 오픈에서 세 번째 PGA 투어 우승을 추가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5세 이전에 세 번의 우승을 달성한 선수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5명뿐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앤소니 김은 골프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해 웰스 파코 챔피언십 도중 왼쪽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중도 기권한 것이 마지막 공식 경기였다.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에도 손, 어깨, 척추 융합술 등 크고 작은 수술이 이어졌다. 재활은 번번이 실패했고,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아킬레스건 수술 이후 그에게는 커리어 종료 부상에 해당하는 장애 보험금이 일부 지급됐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전체 기사 읽기〉

금액은 1,000만~2,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한 주변인은 “투어에서 단 한 번의 스윙만 해도 보험이 날아간다”며 그가 시합에 나서면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ESPN에 전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취미로도 골프채를 잡지 않았다. 2014년 골프채널은 “앤소니 김은 더이상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골프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2016년 모교 오클라호마 대학의 자선 대회에 한 차례 나타났지만, 14홀을 치고는 그냥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사라짐에는 보험금 외에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앤소니 김은 마침내 자신이 골프계에서 사라졌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아킬레스건 수술 후 아픔을 참기 위해 약과 술에 기댔다. 메이저 챔피언십을 치르면서 몇 홀마다 포터블 화장실에 들르며 마약을 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숨겨서 결국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다.” 그는 수술 후 통증과 싸우며 중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고백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도 따라왔다.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았고, 리얼리티 TV를 보고, 음식을 먹고, 반려동물과 함께 그냥 있었다.”

2023년, 의사들은 몸 상태가 너무 나빠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활과 가족의 힘

전환점은 재활 시설에서 찾아왔다. 2023년 초 앤소니 김은 재활 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금단 증상으로 스스로 걷지도 못했고, 보조를 받아야 했다. 그 경험을 그는 2025년 2월 인스타그램에 상세히 공개했다. “재활 시설에서 저는 신앙과 자기 사랑, 그리고 목적을 찾



았다.” 2025년 2월 20일, 그는 “2년간의 금주”라는 글을 올렸고,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취”라고 했다. 올해 2월이면 3년 금주를 맞이하게 된다.

그가 다시 골프채를 잡게 된 계기는 의외로 소박했다. 아내 에밀리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앤소니 김은 아내의 골프 선생님이 됐고,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함께 라운딩을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에밀리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를 설득했다. 컴백은 가족을 위해서도, 딸 이사벨라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2021년 12월, 예정보다 3개월 일찍 세상에 나온 딸 벨라는 앤소니 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다. “벨라가 태어나면서 에밀리와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목적의식과 자기 존재의 이유가 생겼다.

2024년 LIV 골프가 그에게 와일드카드 자리를 제안하면서 앤서니 김은 12년만에 복귀했다. LIV 측의 계약금이 보험금 손실분을 상쇄했을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복귀는 쉽지 않았다. 첫 대회인 2024년 제다 대회에서 그는 57명 중 꼴찌였다. 첫 두 시즌 동안 단 한번도 탑25위 안에 들지 못했고, 결

국 2025년 시즌 말 LIV에서 강등됐다. 많은 이들은 여기서 앤소니 김의 컴백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11월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공동 5위를 기록하며 14년 만의 톱10 피니시를 달성했다. 2026년 1월 LIV 승급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카드를 되찾았다. 특히 36홀 마지막 홀에서 버디로 컷을 통과한 것은 그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더스틴 존슨의 포에이시스 팀에 합류, 바로 다음 대회인 애들레이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승 직후 그는 18번 홀 그린에서 무릎을 꿇듯 딸 벨라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에밀리가 달려왔고, 세 가족은 오래 겨어안았다.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다. 벨라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아빠가 루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린에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다.”

앤소니 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다.”

“Sober is Dope. (맨정신이 가장 최고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즐겨 쓰는 문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매사추세츠 속도 단속 교통 감시 카메라 도입 추진

▶▶1면에 이어서

고를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설치를 요구해왔다.

보스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천500건 이상의 자동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달 한 번꼴로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미국에서 가장 차량사고가 많은 도시에 속한다.

모라 힐리 주지사의 카메라 허용안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올해 630억달러 주 예산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각타운의 스쿨존과 도로 공사 구간에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지난해 추진했던 “과속단속카메라” 법안보다 적용범위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법안은 도로공사구간에서 제한 속도보다 11마일 이상으로 달리거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6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위반으로 판단해 \$25-\$1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 5천명당 1개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67만 3천명의 주민의 보유한 보스턴의 경우 135카메라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와 위반수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로 인해 인종간 단속 불균형 등을 추적하는 조항은 담고 있지 않다.

의회가 추진중인 법안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시와 타운이 과속뿐 아니라 사거리 신호위반 단속까지 허용한다. 또한 모든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며 벌금도 최대 \$1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모두 차량의 전면 촬영할 수 없도록해 사생활 침

해 소지를 줄였다. 또한 모든 위반 사진은 최종처분 이후 48시간내 파기하도록 했으며, 사진과 개인 정보 기록은 공공기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는 중대 차량충돌 사고를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감시카메라 설치 지지자들은 교통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보스턴 유색인종 거주지역의 교통 안전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역의 교통 사고율은 백인 거주 지역보다 사고 발생율이 4배에 달한다.

보스턴 기반 이반 에스피노자 매

드리걸 인권 변호사는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위반 사례도 연방 당국 및 ICE와의 공유를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드리걸 변호사는 “인종적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 엄격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오랫동안 경찰의 단속으로 피해를 입어온 커뮤니티에서 불균형적 단속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지와 교통 단속 카메라의 사고 감소율에 대한 의문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스턴 겨울을 녹이는 축제 : Boston Frostival 2026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이번 겨울, 보스턴에서는 'Boston Frostival 2026' 이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보스턴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체험을 선사한다. 눈과 얼음을 테마로 한 놀이기구부터 감각적인 윈터 로지, 그리고 세계 여성 와이너리를 조명하는 와인 축제까지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도시 전역에서 펼쳐졌다. 특히 페리스 휠 대관람차(Ferris Wheel)와 프로스티벌 로지(Frostival Lodge)는 겨울 도시의 풍경을 재정의하는 대표 명소로 각광받았다.

보스턴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76피트 높이의 대관람차(Ferris Wheel)가 설치되어 스카이라인과 항구를 한눈에 담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로즈케네디 그린웨이(Rose Kennedy Greenway)에 위치한 이 놀이기구는 기존 운영하던 회전목마인 그린웨이 캐러셀(Greenway Carousel)과 나란히 운영되며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한편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에 마련된 프로스티벌 로지(Frostival Lodge furnished by Wayfair)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지역 미식과 겨울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보스턴의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자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는 게임, 라이브 퍼포먼스, 커뮤니티 이벤트 등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겨울 쉼터를 제공했다.

프로스티벌 페리스 휠(Frostival Ferris Wheel)
겨울 하늘 아래에서 보스턴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람차가 생겼다. 76피트 높이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Frostival의 상징적인 장면을 완성했다.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 관람차는 노스엔드(North End), 워터프런트(Waterfront), 패뉴얼 홀 마켓플레이스(Faneuil Hall Marketplace) 등 보스턴 도심의 랜드마크를 360도 파



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겨울 명물이 됐다. 단 4달러의 저렴한 탑승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번 2월 20일 금요일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보스턴의 겨울경치를 알뜰하게 즐겨보자.

주소: 로즈케네디 그린웨이(Rose Kennedy Greenway),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4일 ~ 3월 1일

시간:

수 · 목 · 일: 12:00 PM ~ 8:00 PM

금 · 토: 12:00 PM ~ 9:00 PM

웹 사이트: <https://www.rosekennedy-greenway.org/calendar/>

프로스티벌 로지(Frostival Lodge furnished by Wayfair)

웨이페어(Wayfair)가 꾸민 겨울 테마 로지로, 따뜻한 실내 공간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나 이트, 어린이 영화 상영, 라이브 공연, 컬링 게임, 보드 게임 등 다채로운 일정이 진행된다. 보스턴의 중심지이자 가장 따뜻한 피난처로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겨울 쉼터를 제공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 그리고 매일 달라지는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달이 지나기 전 꼭 한번 들러 보길 추천한다.

주소: 코플리 스퀘어 (Copley Square),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6일 ~ 2월 28일

시간: 매일 11:00 PM ~ 9:00 PM

웹 사이트: <https://www.meetboston.com/explore/seasons/winter/frostival/frostival-lodge/>

팜 페트 와인 페스티벌(Femme Fête Wine Festival)

Frostival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이벤트로, 여성 소유 와이너리와 여성 와인메이커를 조명하는 와인 축제다. 세계 각국에서 온 40명 이상의 여성 주류 제작자(maker)와 수입업자(importer)가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와인을 직접 소개하고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는 그랜드 테이스팅(grand tasting) 세션에서는 참가자들

이 각 테이블을 돌며 새로운 와인 스타일을 경험하고, 생산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철학과 와인에 얹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오후 행사 후에는 오피셜 애프터파티가 마련되어 DJ 음악과 스페셜 칵테일을 즐기며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주소: 보스턴 센터 포 더 아트 사이클로라마(Boston Center for the Arts at Cyclorama), 539 Tremont St., Boston, MA

날짜: 2026년 2월 28일

시간: 12:00 PM ~ 1:00 AM

티켓: \$60 (무제한 시음과 기념 테이스팅 글라스 포함)

웹사이트: <https://www.thebostoncalendar.com/events/boston-frostival-2026>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보스턴 프로스티벌(Boston Frostival)의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이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즐겨 보길 추천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턴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인생은 직선이 아닌 '선회로' 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6-29)

인생을 직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늘 조급해진다. 출발 → 성공 → 완성. 막힘없이 곧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선회로' 이다. 돌고, 멈추고, 내려가고, 다시 오르며 때로는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길이다. 성경 속 인생은 언제나 “

선회” 였다. 아브라함은 약속까지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곧장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 고향을 떠났지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오는 “선회” 의 시간을 겪었다. 직선이었다면 실패이다. 그러나 선회로였기에 성숙이었다.

굴에서 감옥으로 이어졌던 요셉의 인생은 하강 곡선처럼 보였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직선 논리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이 애굽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큰 선회로였다. 직선은 빠르지만, 선회는 깊게 만든다.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왕이 되기 전의 광야를 돌던 때를 생각해 보라.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위는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광야를 돌고 또 돌았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왕의 심장” 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즉

영혼의 궤도를 다듬는 선회였던 것이다.

자연도 직선으로 자라지 않는다. 나무는 원을 그리며 나뉘어 만든다. 독수리는 상승기류를 타기 위해 선회한다. 행성은 궤도를 따라 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직선이 아니라 궤도(orbit)로 움직인다. 멈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질서 속에서 전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선회하게 하시는가. 첫째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직선은 수정이 어렵다. 그러나 선회는 방향을 바꿀 기회를 준다. 둘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이다. 너무 빠르면 따라오지 못한다. 셋째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이다. 비행기는 곧장 상승하지 않는다. 선회하며 고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선회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은 “왜, 제자리인가?”, “왜, 다시 여기인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은 직선이 아니라 수많은 곡선이 모여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선회로 신앙의 세 가지 태도는 첫째,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직선처럼 보이는 타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굴곡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준비인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궤도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점 점선을 보지만, 하나님은 궤도를 보신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선회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문제?”, “다시 찾아온 시험?”, “오래 기다리는 기도 제목?”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높은 궤도로 옮기기 위한 선회일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다. 그러나 무질서도 아니다. 선회는 하나님의 정밀한 향로 수정이다. 직선은 빠를 수 있지만, 선회는 깊은 것이다. 그리고 깊은 사람만이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7) 적은 수입으로도 부자가 되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어떤 사람들은 과장과 노출,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요란하게 부를 쌓는다. 하지만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쌓이는 또 다른 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초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고, 유행을 쫓지도 않으며,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절약, 저축, 투자’ 를 이야기하면 “그걸로 언제 부자가 되나?”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 복리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38세인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돈이 \$50,000이고 연 수입이 \$60,000이라고 하자. 매달 \$500를 저축하고, 매년 수입이 3% 늘어날 때 저축액도 그만큼 증가하며 연 6%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은퇴 시점인 65세에는 약 \$822,000, 70세에는 \$1.2 million의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수입이 적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낭비 습관

신용카드에 의존하기: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매달 잔금을 전액 갚지 않으면 연 2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는 거의 없다. 이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당신의 부를 갉아 먹는 가장 큰 적이다.

외식과 술자리: 식당에서의 잦은 외식, 술집에서의 모임은 생각보다 큰 지출로 이어진다. 팁과 세금까지 더하면 금세 불어난다. 집에서의 소박한 식사나 소규모 모임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배달 음식 습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신 기술 따라가기: 새로운 기기는 매력적이지만, 전년 모델과 기능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버핏은 여전히 오래된 플립폰을 쓴다. 최신 업그레이드가 정말 가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옷에 대한 과소비: 많은 부자가 단순하고 실용적인 옷을 즐겨 입는다. 브랜드보다 내구성과 활용도를 우선하면 큰 절약이 된다. 오늘 만난 사람의 신발을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구두가 정말 필요할까?

새 차 구입: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빠르다. 버핏은 새로운 모델의 유혹을 피하고, 이미 가진 차를 오래 타라고 조언한다.

과도한 여행: 여행은 좋은 경험이지만, 지나치면 지출이 많다.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담배와 술: 흡연과 과음은 건강뿐 아니라 재정에도 큰 손실을 준다. 금연과 절주는 예산을 지키는 최고의 투자다.

자기 계발에 소홀함: 주식으로 주식 창을 들여다보는 것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일 뿐, 부의 축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버핏은 “가장 큰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배움과 기술 향상은 수입 잠재력을 높이는 최고의

자산이다.

다시 38세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이 사람이 매달 단 \$25(하루 약 83센트)만 더 투자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매월 \$500 투자: 65세에 약 \$822,000, 매월 \$525 투자: 65세에 약 \$1,000,000, 매월 \$525 투자: 70세에는 약 \$1.5 million이 된다.

단 \$25의 차이가 은퇴 자금을 수십만 달러 더 불어나게 만든다. 수입이 적더라도, 낭비를 줄이고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부를 만들어간다. 투자를 시작하는데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어떤 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준다.

돈을 통제하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을 통제한다. 돈은 절대 우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무심코 넘겨온 작은 습관들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갈 뿐이다.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면, 돈은 스스로 결정한다.

STAGE
KARAOKE X STUDIOS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지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wing 등 음식 서비스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당뇨' 경계령 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당뇨병은 주로 중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2030세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 당뇨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내분비내과 윤 태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진료실에서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이상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에 큰 충격을 받은 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최근 5년 새 약 50% 가까이 늘었고, 30대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당뇨병은 과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도 적극적인 경계가 필요한 질환이 되었다.

청년 당뇨는 발병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피로, 체중 변화, 갈증 같은 당뇨 초기 증상을 단순 스트레스

나 피로로 오인하기 쉽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층이 병을 방지하다가 중증 단계에서 병원을 찾게 된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등 다른 대사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증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20대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60대에 발병한 환자보다 더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에 노출돼, 망막병증·신장병증·심근경색·뇌졸중 등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 청년 당뇨 환자의 75%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35%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등 '대사증후군형 당뇨'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당뇨병 급증의 주요 원인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정제당 과다 섭취다. 배달 음식, 편의점 간편식, 액상과당이 들어간 고당도 음료 섭취가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로 슈거(Zero Sugar)'에 대한 맹신도 위험하다. 제로 제품에도 말티톨 같은 당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며 건강식품으로 착각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식습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설탕과 밀가루 중심의 식습관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시간이 더해져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생활 습관 점검이 필수적이다.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과체중이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20대부터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 당뇨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급변한 사회 환경이 만든 사회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부담감과 바쁜 사회 생활과의 충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려면 모바일·웨어러블 기반의 맞춤형

관리 시스템과 연속혈당측정기(CGM) 보험 확대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30 세대 역시, 젊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에 방심해선 안 된다. 당뇨병은 증상 없이 다가오는 '조용한 살인자' 와도 같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혈당검사를 받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청년 당뇨’ 경계령...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다운 사이징(Downsizing) - 작은집이 주는 더 큰 자유!

2025년을 지나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MA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선에도 조용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눈여겨볼 변화는 자산의 구조입니다.

집에 묶여 있던 자산을 일부 정리하면서 현금 흐름에 여유를 갖거나, 자녀에게 미리 정리된 구조를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과 자금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작은 집은 포기기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털어내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집보다 작은 집 (Downsizing)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동네” 가 자연스러운 목표였다면, 요즘 상담 테이블에서는 다른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 큰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집값이나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

호에 가깝습니다. 더이상 큰 집에 오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점점 적어지는 듯합니다.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자녀의 독립을 경험했고, 직장 생활의 끝자락이나 은퇴 이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처럼 집 안 모든 방이 필요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또한 집에 계속 수리할 거리가 생기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더 고민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식의 다운사이징을 해야 할지 필요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면 각자 재정 규모에 따라 주거 환경을 현실적인 삶의 구조와 편의 시설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작은 집으로의 다운사이징은 집의 유지 보수비용을 절약하고, 주택 판매에서 얻어진 현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단순히 면적이 줄어든 작은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쉬운집, 생활 동선이 단순하고 편한 집, 불필요한 공간이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층주택, 유닛하우스, 소

형 타운 하우스,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콘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삶은 오히려 넓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은퇴 저축, 여행,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예산에 여유가 더 생기면서 다방면에 예산을 줄이며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집을 바꾸는 순간보다 그 결정을 미루느라 더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막연한 불안, 주변의 시선, “아직은 괜찮다” 는 생각이 결정을 늦춥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집을 다시 한번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시점입니다. 이 집이 앞으로의 나를 편하게 해 줄지, 아니면 계속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을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은 커야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맞아야 좋은 집입니다.

작은 집이 주는 자유는 숫자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집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쳐주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집의 역할은 완성됩니다. 평생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여 좀 더 큰 집을 위해 모아온 살림 규모를 점차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주거

관리비, 지출, 월페이먼트, 세금 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은 꼭 필요한 듯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경제적 재검토인 듯합니다.

다운사이징을 준비하는 셀러 & 바이어 조

매도인(Seller) 과정

“지금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나”? 보다 “팔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를 먼저 정리합니다.

매수자(Buyer) 과정

작은 집일 수록 입지, 관리비, 재판매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다운사이징은 “작아지는 선택” 이 아니고 삶을 가볍게 재정비하는 선택입니다.

2026년을 향한 선택이 조금 가벼워질길 바랍니다. 집을 줄이는 결정이, 삶을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칼럼을 처음으로 게재하면서 책임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의 35년 부동산의 경험과 정확한 데이터를 위주로 보스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월 22일 - 2월 2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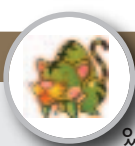
쥐띠 | 좋은 에너지를 받는

● 운수: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게 되고 좋은 에너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애정: 상대를 위해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해주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소띠 | 책임을 다하도록

● 운수: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내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 금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거나 헛수고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



범띠 |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 운수: 지금껏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될 것입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현명한 판단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생깁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5일 길일. 22, 24일 주의.



토끼띠 | 행운이 기대되는

● 운수: 행운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게 해 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3,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용띠 | 능력이 돋보이고

●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되고 마음이 통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6일 주의.



말띠 |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 운수: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5일 길일. 21, 22일 주의.



말띠 |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

●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 금전: 금전윙통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은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 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4, 26일 길일. 20,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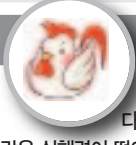
양띠 |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 운수: 집중하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진보다는 잠시 멈춰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재운은 매일 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셔야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보세요. 03, 91, 79, 67, 55, 43년생은 24,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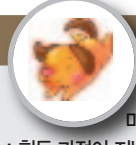
원숭이띠 |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04, 92, 80, 68, 56, 44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닭띠 | 대화로써 풀어야

●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 많은 사람은 실행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니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 애정: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써 풀어야겠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20,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개띠 | 넓고 큰마음으로

● 운수: 지나친 근심 걱정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힘든 과정이 지난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쁨이 마련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살랑살랑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5,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대한 독립 만세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식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CEREMONY

시간: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1부: 3·1절 기념식
2부: 매사추세츠 한인회 정기 총회

장소: 주보스턴 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REET
ONE GATEWAY CENTER 8층 SUITE 800
NEWTON, MA 02458

협찬:  주보스턴 총영사관  매사추세츠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보스턴 **코리아**